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바람직한 선진국의 조건은 무엇인가?

최근 정치권에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는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오에 끼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소득만이 아닌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 모든 계층에 걸쳐 선진 여러 나라에 뒤지지 않고 국민 모두가 더 붙어 잘사는 나라를 말 할 것입니다.

또한 도농격차가 없는 나라일 것입니다. 국민 모두와 후손들을 위해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잘 가꾸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내에 3만불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농촌 살리기에는 아무래도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이 농촌이 급격히 해체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선진국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할 뿐 만 아니라 농민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농촌이 살아야 농업도 농민도 살아남을 수 있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의 안보도 튼튼해 질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

고와 정책으로는 농촌사회가 계속 유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농촌문제가 농민이나 농업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농업, 농촌, 농민의 어려움이 결국은 국민과 국가가 안아야 할 고통이요, 부담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통해서만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21C 이 땅의 농업, 농촌, 농민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와 문화적 배경, 과밀한 인구, 그리고 국제질서의 변화와 과학문명의 발달 등을 감안한 21세기의 한국형 농정의 틀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농가 1호당, 국민 1인당 광활한 농토를 갖고 있는 서구식 사고와 학문을 기초로 한 지난날의 농정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생산의 기본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등 어느 것 하나 경쟁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규모화나 시장경쟁력만 강조한다면, 이 땅의 농업, 농촌은 존립이 불가능 합니다. 21C 이 땅의 농업, 농촌, 농민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농업소득중심의 농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동참하는 생활농업과 병존하여 다원적 가치가 존중되는 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생활농업은 건강, 보람, 취미, 자급의 의미를 담은 농업입니다.

농촌에 사람이 살도록 하는 농업이야말로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농업입니다. 농업소득 즉 1차 산업에만 의존하는 농가수를 줄여야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을 혹은 농가단위 가공과 직거래를 포함하는 소위 6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농촌은 농업생산 터전이나 농민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농촌은 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가속화되는 도시의 비대화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것만이 아닌 경관과 환경, 국토를 지켜주는 공익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21C 한국형 농정의 틀을 짜야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며, 국가의 부담도 줄어줄 것입니다.

농민만을 위한 농정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농정으로 전환시켜 살맛나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 국민들이 지키고 싶은 농업, 농촌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

1가구 1농장 갖기(국민농원) 동참입니다.

오늘의 농업, 농촌, 농민이 앓고 있는 위기를 국민과 함께 풀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농업·농촌에의 접근, 이해, 사랑,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농업·농촌 지키고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시민들이 쉽게 가까이에서 꽃 한 송이, 고추 한

포기 등을 가꾸고 관찰하자는 것 입니다. 좁은 아파트 베란다 텃밭 공간, 주말농장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또한 농촌에서 반 정주가 가능한 체재형 주말농원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도시민은 자신의 농토가 없어도 좋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농촌의 농민과의 오너제 등의 계약을 통해 도농교류와 직거래부터 하는 것입니다.

도시민들은 자신이 계약한 농작물이 농민들의 정성과 땀으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보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농업,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여유와 풍요로움을 찾고자 자신의 삶 속 농업을 접목시키고 생활하기 위해 1가구 1농장을 갖고 소위 애그리라이프를 실천할 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확산될 것입니다.

결국은 도시민들이 낸 세금이 기꺼이 농촌에 투입되는데 동의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농업,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농협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농촌사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1사 1촌운동도 매우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민들이 아무리 농촌을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 농민과 농촌이 도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킬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들도록 생명산업으로써 생태순환형 농업을 육성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어야만 합니다.

먼저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된 생태순환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을 살기 좋게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살맛나고 도시민들도 살고 싶은 그래서 도시민들이 또 찾는 농촌을 가꾸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은 재정적 투자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정성과 애정 그리고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농촌만이 갖는 농촌다움을 우리 자신이 발굴하고 가꾸어서 도시민들과 함께 향유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선도농기들이 국민의 농촌 가꾸기에 앞장 설 때 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자들은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을 이념으로 다져진 선도농가입니다. 현재의 농촌 사회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도농가로서 나라가 어려웠던 60~70

년대 농업·농촌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 그 동안 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21세기의 3대혁명을 완수시키기 위해 저력을 발휘 할 때 입니다.

우리 농촌을 살맛나고 모든 국민이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꾸는데 선도농가로서의 책무를 다합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가꾸기에 농심으로 무장된 우리 선도농기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야할 시점 입니다.

2005년 12월 6일

제46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강 춘 성

연회비 미납 회원분들께 알립니다~!

농업기술회보 연회원 여러분!
더욱 발전하는 회보를 위하여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년 구독 기간이 완료 되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067-01-224657 예금주 : 농기협
우체국 012211-01-000320 예금주 : 농기협
제일은행 327-20-016036 예금주 : 농기협
(송금 후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회보』 구독 1년이 지난 연회원 일 경우, 연회비 : 10,000원
평생구독을 원하실 경우, 평생회원비 : 100,000원